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11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9과부터 하나님을 알자는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 10과에서는 삼위일체 문제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사상을 연구하였다. 11과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체들을 연구하려고 한다. 삼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 그 세 개체는 각각 독립적이면서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본성과 품성과 목적과 능력이 동등하시다. 존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계신다.

1.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요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첫 번째 공식 선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이다.

[요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벧전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마23:9] 땅에 있는 자를 아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성경은 하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계시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한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를 만물이 인(因)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분이라고 말한다.

[히2: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인하고”라는 말과 “말미암은”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뒤따르는 말이 다르다.

“만물이 인하고”는 “디 혼 타 판타(δι’ τὰ πάντα)”이고 “만물이 말미암은”은 “디 후 타 판타(δι’ οὗ τὰ πάντα)”이다. “디”는 “디아(διά)”의 줄임 형이다. 혼(ὄν)은 관계대명사 호스(ὅς)의 대격이고, 후(οὗ)는 같은 관계대명사의 속격이다.

“만물이 인하고”는 만물의 존재 근거, 원인을 뜻하는 말이고, “만물이 말미암은” 만물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조물의 하나로 여김을 받을 위치를 자원하여 차지하셨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며,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 것이었다.

2.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계시한다.

[마16:16,17]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의 위(位)를 자원하여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

[빌2:6,7]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들의 지위를 취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는 원래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존하는 아버지시오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분이 아들의 위를 취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일2: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일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5: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딤후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를 취하여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다.

3. 성령 하나님

성경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한 곳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확실히 계시되어 있다.

[행5:3,4]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성령을 속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다.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성령이 여호와이심을 말할 때 이미 찾아 본 말씀인데,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여호와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여호와라고 불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

이렇게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 삼위가 다 스스로 계신분이라는 이름 여호와라고 계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고, 감화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롬8: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는데, 만일 성령이 하나님의 감화력이나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이 말씀은 참으로 이상한 말이다. 하나님이 자기 감화력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감화력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성령은 개체를 가지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심이 확실하지 않는다.

우리가 더 자세히 연구하면 그 속성이나 능력이나 인격에 대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자는 제목을 연구함에 이상으로 마치려고 한다.

우리는 정직한 마음과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

이 삼위는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말은 존재의 복수성(複數性)을 깨닫게 하는 속성이다. 사랑은 혼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 성질상 복수를 요구한다. 사랑은 서로에게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는 특성이다.

4. 삼위는 모두 주라고 계시하였다.

[눅1:32]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행3: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막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행4: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롬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5:11]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다 주라고 계시하였다.

[고후3:17,18]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곳에 주는 영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성령이 주님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주님이 계시면 자유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는 18절에 마지막 문장 “주위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는 말씀은 “주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이다. “주”와 “영”이 다 속격인데, 이럴 때는 주와 영이 동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번역들은 그렇게 번역하였다.

공동번역

[고후3:18]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 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표준 새번역

[고후3:18]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후3:18]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령을 주님이라고 계시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주님이시다.

RSV

[고후3:18] And we all, with unveiled face, beholding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changed into his likeness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for this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ASV

[고후3:18] But we all, with unveiled face beholding as in a mirror the glory of the Lord, are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glory to glory, even as from **the Lord the Spirit.**

NIV

[고후3:18] And we, who with unveiled faces all reflect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with ever-increasing glory, which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4.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아담(남자)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표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창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필을 창조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내적 형상은 사랑이다. 사랑은 독처하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실현되기 위하여 사람은 독처하면 안 된다.

[창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고 계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 양성(兩性)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양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요일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삼위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의 교제 중에 계시는 것이다. 그 충만한 사랑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

신 계기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증거하며, 우주와 만물이 다 삼수(三數)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증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한대로 만나고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충만하다.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자.